

“화합·감동체전 만들자”...전남도, 막바지 역량 결집

유관기관 합동 준비상황보고회

교통·숙박·인파관리 등 중점 점검

김 지사 “손님맞이 소홀함 없어야”

전남도가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제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막바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김영록 지사 주재로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22개 시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 체전 합동 보고회를 열고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 대회 기간 전담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대회 운영, 교통·주차대책, 숙박·위생업소 점검, 인파관리,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도민의 얼굴로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화장실 위생 관리와 방치된 쓰레기 수거, 보도블록 잡초 제거 등 세세한 부분의 환경정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와 유관기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장에 참석, 관계자들과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완벽한 화합·감동 체전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전 도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도민화합체전’을 위해 당초 목표를 훨씬 넘

은 도민응원단(1만5,571명)과 자원봉사단(4,256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단의 사기진작,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안내와 질서유지, 전남 홍보 활동 등 양대 체전 성공 개최의 핵심 주역으로 활약하게

된다.

자연과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의 하나로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의 열린음악회 녹화를 마쳤고 오는 10월 8일 방영을 앞두고 있다. 또 전국체전 개최식 전날인 10월 12일

특별기획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체전 기간 중 대 한민국예술축전,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예술단체 공연, 버스킹, 시군 연계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경기장은 신축과 개보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도는 개·폐회식 입·퇴장 관리, 교통대책 등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공고히 구축, ‘안전체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대회 성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손님맞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며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모든 방문객은 따뜻한 전남의 정을 담아가도록 마지막까지 현장 위주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정근산 기자

광주보건환경연, 추석 비상대응체계 가동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감염병 발생과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가족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감염병·환경오염·동물위생 총 3개 분야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추석 연휴기간 해외유입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과 집단 식중독 등 지역 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분야 비상대응요원 24명을 구성해 자치구 보건소,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청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질측정조사반과 대기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질측정조사반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원인 파악과 수질조사를 한다. 대기환경종합상황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에어코리아에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시민과 언론사에 발령상황을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강 시장 “아이들 건강히 자랄 수 있게 최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방문

의료진·보호자 목소리 경청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 오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중인 광주기독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 진료 계획 등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진료현장을 살펴보고, 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을 만나 어린이병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두 살 아이가 갑작스레 아파 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그동안 휴일이나 심야에 운영되는 어린이병원이 없어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병원응급실을 수소문



하느라 발만 동동 굴렀다”며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광주에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순주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또 다른 보호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갈수록 사라진다고 한다”며 “곧 둘째 손주도 태어나는데 걱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진

을 격려하고 이들과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인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료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 추석 연휴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하니 안심이다. 부모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내 손안의 변화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돼 9월 1일부터 운영중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4시(밤 12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길용현 기자

거문도서 기른 ‘양식 부세 굴비’ 백화점 입점

국내 첫 추석 명절 시범 판매

기술 보급 성과...중국산 대체

여수 거문도 청정해역에서 기른 양식 부세 굴비가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로 등장했다.

25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거문도 양식 부세 굴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신세계 백화점 7개 매장에서 추석 명절에 맞춰 시범 판매되고 있다.

판매 물량은 선물용 370상자(3,700마리)와 간편식으로 개별 포장된 진 굴비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은 그

동안 넙치, 조피볼락에 편중된 어류양식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 부세 바다가 두리 양식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부세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고수온에 강한 품종인 부세 양식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2019년부터 시범어가를 선정해 부세 수정란과 종자를 지속적으로 분양하고, 양식 기술을 지원한 결과 올해 프리미엄 시장인 백화점 입점 성과를 거뒀다.

백화점 판매는 국산 양식 부세 유통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중앙회가 유통망 구축에 힘을 보태 성사됐다.

부세는 최대 80cm까지 성장한다. 고

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참조기에 비해 대형 종이며 예전에는 ‘짜통 조기’로 불렸다.

현재 자원이 고갈된 대형 참조기를 대신해 중국산 양식 부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부세 굴비 상품화는 수입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판매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는 부세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부세 양식 활성화와 고수온·수입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해 부세 신품종 양식기술개발과 현장적용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농기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확대

장성군 공모 선정 국비 10억 확보

2027년 전 시군 구축...안전 담보

전남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4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25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5곳이 선정됐다. 전남에선 장성군이 유

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농기원은 확보한 사업비를 지역 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시설 확대에 투입한다.

2019년까지 4곳에 불과하던 전남지역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올해까지 12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 시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하면 전남지역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나주, 광양, 담

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함평, 진도, 신안, 여수까지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검사 시설이 전 시군에 구축되면 소비자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완성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선정된 장성군은 2025년까지 2년간 10억원을 지원받아 463종 성분의 농약 잔류분석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은 농산물 안전 분석실이 구축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근산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 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